

2021년 2월 4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정책 추진 본격화 기대 확산

금융, 에너지, 일부 소비재 상승 Vs. 반도체, 헬스케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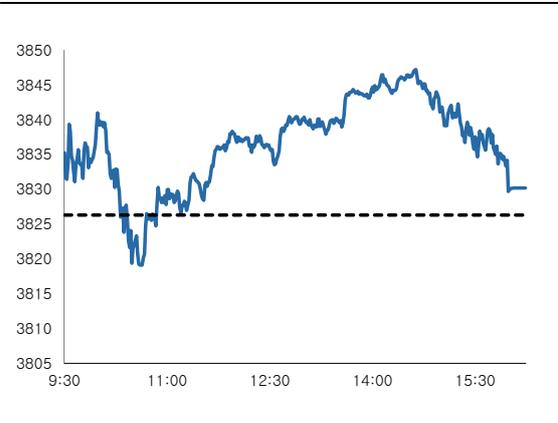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경제지표 ②상원 운영 규칙 협상 ③국제유가 ④부양책 논란

미 증시는 실적 발표 이후 급등한 알파벳(+7.28%)과 양호한 고용지표 결과에 힘입어 대형 기술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했으나 2019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서비스업지수가 발표되자 부양책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며 하락 전환. 그러나 상원 운영 규칙 협상이 타결되자 바이든 정부 정책 추진 본격화 기대로 상승을 했으며 장 마감 앞두고 매물 출회되자 결국 혼조 마감(다우 +0.12%, 나스닥 -0.02%, S&P500 +0.10%, 러셀 2000 +0.38%)

미 증시는 ①경제지표 ②상원 운영 규칙 협상 ③국제유가 ④부양책 논란 등에 의해 변화. 먼저 경제지표 인데 ADP는 비농업 고용자수가 전월 7.8만건 감소에서 17.4만건 증가로 개선되었다고 발표. 서비스업이 7.3만건 감소에서 15.6만건 증가로 전환된 데 따른 것. 500인 이상 대기업이 10.9만건 감소에서 3.9만건 증가로, 500인 이하의 중견기업도 전월(4.3만건 증가)에 이어 8.4만건 증가로 이어져 부양책 효과를 보여줌. ISM 서비스업지수 또한 전월(57.7)보다 개선된 58.7로 발표돼 201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신규 주문 지수 및 고용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 결과가 나오자 시장 일각에서 공화당이 주장 하듯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만으로도 충분하고 추가 부양책 규모 또한 축소될 수 있다는 평가 속 매물 출회

한편, 상원은 의석수가 50:50을 기록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 규칙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이 여파로 대부분 상임위 위원장은 공화당 의원인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 지연되는 등 걸림돌이 되어 왔음. 그렇지만 이날 상원 운영 규칙 협상이 타결돼 상원 통제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옴. 이렇게 되자 예산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버니 샌더스 의원이 '조정권'을 발표해 민주당 만으로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법안 승인이 가능해 짐. 물론 장 후반 매물 출회 요인인 규제 강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될 수 있어 향후 미국 정치 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국제유가는 OPEC이 글로벌 원유 비축량이 6월에는 5년 평균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이러한 변화 요인으로 금융, 에너지 등이 상승하고 반도체, 기술주 등은 부진한 차별화가 진행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3,129.68	+1.06	홍콩항셱	29,307.46	+0.20
KOSDAQ	970.69	+0.71	영국	6,507.82	-0.14
DOW	30,723.60	+0.12	독일	13,933.63	+0.71
NASDAQ	13,610.54	-0.02	프랑스	5,563.05	-0.00
S&P 500	3,830.17	+0.10	스페인	8,012.80	+0.78
상하이종합	3,517.31	-0.46	그리스	764.33	+0.49
일본	28,646.50	+1.00	이탈리아	22,527.90	+2.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은행, 에너지 상승 Vs. 반도체 하락

최근 MS(+1.46%)와 페이스북(-0.16%) 등이 실적 발표에서 광고 수익이 급증 했었는데 알파벳(+7.28%)도 광고 수익이 급격하게 확대된 데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했다. 특히 지난 분기 광고 수익율이 완만해 우려가 확대 되었으나 이를 해소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다. 아마존(-2.00%)는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급증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하락 했다. 배조스 사임과 영업이익 가이던스 밴드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 따른 결과로 추정한다.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자 JP모건(+1.15%), BOA(+1.77%) 등 금융주도 상승했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원유 비축량 감소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자 엑손모빌(+3.92%), 코노코필립스(+5.47%) 등 에너지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애플(-0.78%)은 애플카 관련 소식이 지속되고 있으나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으며 테슬라(-2.07%)는 경쟁 격화 우려로 하락 했다. 포드(+3.13%)는 픽업 트럭 공급 부족 등으로 1월 판매가 전년 대비 8.3% 감소 했으나, 21년 형 F-150 판매가 긍정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마이크론(-3.08%), TI(-3.53%), AMAT(-3.59%) 등 반도체 업종은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2% 하락했다.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퀄컴(-1.50%)은 시간 외로 7% 내외 하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47%	대형 가치주 ETF(IVE)	+0.41%
에너지섹터 ETF(OIH)	+4.83%	중형 가치주 ETF(IWS)	+0.54%
소매업체 ETF(XRT)	+1.68%	소형 가치주 ETF(IWN)	+0.63%
금융섹터 ETF(XLF)	+0.57%	대형 성장주 ETF(VUG)	-0.25%
기술섹터 ETF(XLK)	-0.34%	중형 성장주 ETF(IWP)	-0.5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28%	소형 성장주 ETF(IWO)	+0.12%
인터넷업체 ETF(FDN)	+0.34%	배당주 ETF(DVY)	+0.89%
리츠업체 ETF(XLRE)	-0.4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2%
주택건설업체 ETF(XHB)	-0.2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3%
바이오섹터 ETF(IBB)	-0.38%	미국 국채 ETF(IEF)	-0.24%
헬스케어 ETF(XLV)	-0.71%	하이일드 ETF(JNK)	+0.07%
곡물 ETF(DBA)	+0.12%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1.88%	Long/short ETF(BTAL)	-1.97%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14.75	+4.27%	+3.80%	+5.10%
소재	456.79	+0.20%	+2.51%	-1.00%
산업재	739.92	+0.05%	+2.56%	+0.28%
경기소비재	1,360.28	-0.76%	+2.26%	+4.75%
필수소비재	665.02	+0.16%	-0.71%	-3.45%
헬스케어	1,339.46	-0.70%	+0.53%	+1.04%
금융	500.85	+0.51%	+3.98%	+3.14%
IT	2,348.81	-0.30%	+1.49%	+3.66%
커뮤니케이션	230.85	+2.06%	+4.92%	+5.33%
유틸리티	319.12	-0.30%	+1.64%	+2.66%
부동산	234.25	-0.37%	+1.58%	+6.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업종 차별화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0% MSCI 신흥 지수 ETF 는 0.14% 상승 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약 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3.6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경제 정상화 기대감과 애플카 관련 언론 보도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을 했다. 더불어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등 수급적인 영향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오늘 미국 상원 운영 규칙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이는 재정정책 확대 기대를 높였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미국의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 되고 국제유가 또한 상승폭을 확대한 점은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를 높인다는 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미 증시에서 최근 상승폭을 컸던 종목과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등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날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2% 하락하는 등 반도체 업종이 부진 했다. 물론 시장의 변화가 확대 되기 보다는 개별 업종의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업종 차별화가 진행 되었다고 볼 수 있어 한국 증시 또한 이러한 경향이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변화가 제한 된 가운데 금융, 에너지 등 호재가 유입된 업종과 경제 정상화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차별화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서비스업 PMI 2019년 2월 이후 최고치

1 월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결과 비농업 고용자수가 전월(-7.8 만건)은 물론 예상(+5 만건)을 크게 상회한 17.4 만건이 증가 했다. 특히 서비스 부분이 7 만 3 천건 감소에서 15 만 6 천건 증가한 점이 개선 요인이었다. 한편, 전월 수치도 12.3 만건 감소에서 7.8 만건 감소로 축소되었다.

1 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코로나 이슈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56.8) 되었으나 전월(57.7) 보다 크게 개선된 58.7 로 발표되었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세부 항목을 보면 혼조세를 보였는데 신규주문이 58.6 에서 61.8 로 크게 개선 되었으며 고용지수는 지난 달 기준선인 50 을 하회한 48.7 이었는데 이보다 크게 개선된 55.2 로 발표되었다. 다만 상업 활동 지수는 60.5 에서 59.9 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영향은 크지 않았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OPEC 이 원유 비축량이 6 월에는 5 년 평균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상승폭을 확대 해 1 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나아가 추가 부양책 기대, 경제 정상화 가능성 부각 등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또한 이러한 원유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다. 반면, EIA 가 지난 주 원유재고가 100 만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해 예상을 하회했고, 가솔린 재고도 45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한 이후 원유 상승폭이 일부 축소되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호전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전일에 이어 미국 경제는 정상화로 가고 있는 반면, 유로존은 경제 봉쇄 등으로 여전히 위축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역외 위안화 환율을 비롯해 여타 신흥국 환율은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국채금리는 추가 부양책 기대 심리가 높아진 가운데 경제지표 또한 긍정적으로 발표되자 상승 했다. ADP 는 예상보다 큰 비농업 고용자수 증가를 발표했고, ISM 제조업지수는 2019 년 2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 백신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반기 경제 정상화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으로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반발 매수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혼조 양상을 보였고, 곡물가격은 옥수수 수출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는 등 수요가 강하다는 신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특히 멕시코를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관련 기대를 높이는 발표가 있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5.69	+1.70	+5.37	Dollar Index	91.111	-0.09	+0.51
브렌트유	58.46	+1.74	+5.28	EUR/USD	1.2036	-0.07	-0.62
금	1,835.10	+0.09	-0.75	USD/JPY	105.03	+0.05	+0.88
은	26.889	+1.84	+5.91	GBP/USD	1.3640	-0.20	-0.34
알루미늄	1,973.50	+0.05	-0.93	USD/CHF	0.8989	+0.18	+1.14
전기동	7,842.50	+0.84	+0.22	AUD/USD	0.7624	+0.22	-0.51
아연	2,615.00	+1.77	+1.22	USD/CAD	1.2786	+0.04	-0.10
옥수수	552.00	+1.66	+3.37	USD/BRL	5.378	+0.35	-0.61
밀	648.25	+0.54	-1.52	USD/CNH	6.458	-0.01	-0.59
대두	1,371.25	+1.22	-0.25	USD/KRW	1114.90	-0.25	+0.95
커피	123.95	+0.45	-1.24	USD/KRW NDF1M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137	+4.11	+12.13	스페인	0.124	+0.90	+5.10
한국	1.767	+0.20	+0.50	포르투갈	0.053	0.00	+3.40
일본	0.058	+0.40	+0.90	그리스	0.634	-3.20	-3.80
독일	-0.464	+2.50	+8.20	이탈리아	0.585	-6.50	-6.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